

차지량

: 유목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인사
Good morning, Good night

글: 김지울 (K-arts'20)



차지량 : 유목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인사 Good morning, Good night

1

젊고 슬픈 우리 존재¹⁾는 자본주의의 사회 모순을 경험하며 패배주의에 잠식되지 않기를 소원한다. 정착하고자 하는 욕구는 너무 쉽게 좌절되고, 개인의 존재 의미는 효용성이라는 이름 아래 연해져만 가는 시대. 이 시대의 작가 차지량은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우리네 절망을, 그리고 우리네 체념을 외면하지 않고 품고자 하며, 노마드적 작업을 통해 존재성의 회복을 시도한다.

1) 《제19회 송은미술 대상전》 전시 전경
1 임지선, 연남장X차지량 《Good morning : Good night》 전시 리뷰

그는 2010년 잠든 도시에서 사람들과 행진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시스템과 개인의 관계를 다룬 미디어 작업을 이어왔다.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과 국가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개인들이 '우리'라는 피상적 단어에 묶여, 쉽게 이해될 수 있는 하나의 부품처럼 인식되는 것을 거부하는 그의 작업을 관통하는 감정은 '불안'이다. 우리 세대에 공통적으로 내재한 불안과 절망이라는 감각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닌 주어진 것이었다. 이 지점에서 작가는 '어쩔 수 없는' 불안을 '자발적' 불안으로 비틀어 주체성의 실마리로 풀어낸다. 우리에게 표류하고 유명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그리고 그것을 만끽하는 것은 곧 시스템이 부과한 무기력에 대한 대항임을, 작가는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처저말 : 유목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인사 Good morning, Good night



03:35:40, Jul. 15, 2014



02:52:38, Jul. 15, 2014

© CHA JI RYANG

2012년, 집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비어있는 주거공간을 떠돌아 다니는 <New Home> 프로젝트는 견고한 시스템에 흠집을 내고자 한 시도였다. 이들은 철새가 되어 표류하며, 공사 중이거나 버려진 빈 집에 침입하여 작은 테러를 일으켰다. 벽지에 삼겹살 냄새를 배게 한다던가, 마감 전인 천장에 복숭아씨를 버린다던가 하는 체념적인 동시에 희망적인 테러들. 이런 테러들은 시스템에서 탈주하여 표류하는 개인들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불안에 지지 않으려는 연약하지만 옹기있는 날개짓으로 독해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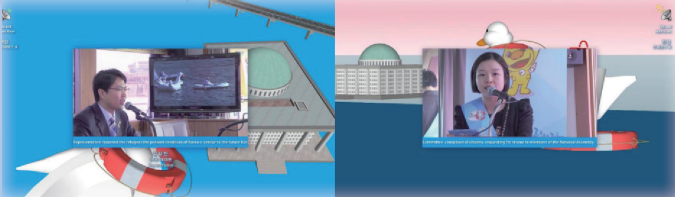
처저말 : 유목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인사 Good morning, Good night



© CHA JI RYANG

2014년 시작한 '한국 난민' 시리즈는 표류와 주체성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엮은 프로젝트였다. 작가는 사회 전반의 균형이 무너진 2024년 대한민국에서 스스로 난민이길 자처하는 사람들과 함께 망명신청서를 작성한 후, 국가로부터 탈출을 감행한다. 난민 129명을 태우고 이상국가를 찾아 부산항에서 출발한 배는 2014년의 부산항에 도착한다. 미래에서 떠돌아 온 난민들은 부산항을 거쳐 한강으로 유입되고, 구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과의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시스템에서 완벽히 분리되지 못하고 현재에 묶여 구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마냥 체념하지 않고 변화를 요구하는 용기. 실패로 끝날 것을 알고도 떠남으로써 희미해진 우리 존재를 역사적 주체로 세우려는 시도. 시간과 공간의 경계에서 부유하려는 의지로부터 우리는 우리 각각이 어떤 사람인지 질문할 수 있는 것이다.

처지람 : 유목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인사 Good morning, Good night



© CHA JI RYANG

유목의 가능성을 구조적이고 관계적으로 바라보던 차지량은 2019년 <떠나려는 사람만이 모든 것을 본다>에서 이제 개인적인 표류를 소재로 삼는다. 베를린 레지던시 스튜디오에서 생활하던 시절, 어디에도 머물지 못하고 떠도는 '천사들과 박쥐들'을 만난 작가는, 그들과 보낸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간,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공간을 영상 푸티지로 담아낸다. 스스로 시스템에서 벗어나 유목을 선택함으로써 삶의 방식을 확장시키는 박쥐들. 그들은 규격화 된 시간과 구조적인 공간이 아닌, 각자에 맞게 재구성된 시공을 구축하여 우리에게 내어준다. 우리는 이 이상한 장소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보게될까. 고유하고 외로운 우리는 떠도는 와중에 누군가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차지량 : 유목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인사 Good morning, Good night



© CHA JI RYANG

우리를 욕망하게 만드는 시대로부터 탈락하고자 하는 용기. 차지량은 천진해보이는 이 원시적 믿음을 가지고 시대를 견뎌낸다. 지금-여기(now-here)를 초월하여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부재의 장소(no -where)¹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언제나 좌절되지만, 실패는 사소한 것임을 작가는 알고 있다. 우리에게겐 고향이 없다. 고향은 잃어버린 것도, 잊은 것도 아닌, 그냥 없는 것. 우리가 우리의 고향.² 이제 유목민적 태도는 세계를 향해 던지는 질문으로, 불안한 우리가 교차할 수 있는 미지의 가능성으로 확대 된다.

차지량 : 유목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인사 Good morning, Good night



© CHA JI RYANG

10) 떠나려는 사람만이 모든 것을 본다 / 멀티 채널 비디오 / 43분 / 2012~2019
 11) 개인의 장벽, 개인의 날개 / 설치 / 2019

2 질 들뢰즈, 『차이와 반복 Difference et Repetition』
 3 김소연, 『시옷의 세계』, (마음산책, 2012), 155p 인용